

어린이 필자들이 쓴 어린이책

자신들 이야기 진솔하게 표현해 신선감 줘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고민과 생각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담아 책으로 묶은 '어린이글모음'들이 어린이 자신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올바른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 대체로 교훈적인 성인작가들의 동화책과는 달리 어린이 자신들이 직접 저자로 참여한 어린이글모음에는 그 또래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 사회문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견해, 그리고 진지한 고민과 깨끗한 의지가 놀랍도록 뚜렷하게 담겨 있다.

어린이들의 글을 묶은 책에는 학급문집이나 일기모음, 주제별로 골라모은 산문집, 그리고 백일장 입상작들을 모은 작품집 등이 주종을 이룬다. 지난 78년 아동문학가 이오덕씨에 의해 농촌아이들의 글 277편을 한권에 묶은 「일하는 아이들」(청년사)을 시작으로 80년대 중반 글쓰기교육에 뜻을 둔 젊은교사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묶여나와 현재 서점가에는 30~40여종이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의 글모음이 소개되고, 외국에서 살다운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에 의해 외국동화책이 번역되는 등 다양하게 출판돼 있다.

직접 번역한 동화책도 선보여

현암사에서 나온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모음'은 어린이교육연구회 회원 선생님들이 서울에 사는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 생활과 환경을 알기위해 어린이들의 글을 공모, 모인 4만여편 가운데서 700편을 골라 주제별로 나누어 담은 것이다.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집 앞집 옆집」 「우리도 알고 있어요」 등 4권에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가족, 학교, 선생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와 겨레, 사회의 모습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솔직하게 써져 있다.

'창비아동문고'의 57권부터 61권까지 들어 있는 '어린이와 소년의 이야기·시·일기 모음'은 아동문학가 이오덕씨가 학급문고를 꾸준히 발간해오던 강원도의 임길택, 부산의 이상석, 원당의 이주영, 광주의 천정치 선생님 등의 도움으로 각 지방 어린이들의 글을 모아 장르별·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우리반 순덕이」에는 친구와 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 가던 날」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와 독후감, 「우리집 토끼」에는 자연과 일하기를 글감으로



서점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의 글모음.

한 이야기를 모았다. 「나도 쓸모있을 걸」 「웃음이 터지는 교실」에는 각각 시와 일기글이 담겨 있다. 한편 한편 마다 어느 지방 어느 학교 몇학년의 글인가를 밝혀두고 있어 도시, 농촌, 어촌, 광산촌 등 각각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남녀 어린이들의 생각과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종로서적에서 내놓은 '중울림소년문고'는 세권 모두가 학급문집이다. 시인으로 유명한 임길택 선생님이 강원도 봉정국민학교 재직시 반아이들의 시와 산문, 일기 등을 모아 엮은 「물또래」를 비롯하여, 부산 감전국민학교 백영현 선생님이 학급신문에 실린 글에서 골라낸 「해뜨는 교실」, 거창 셋별국민학교 주중식 선생님이 자신이 맡았던 5학년2반 어린이들의 글을 모아 만든 「들꽃」 등에는 가난속에서도 건강한 웃음을 잃지 않는 어린이들의 꾸밈없는 삶이 배어 있다.

'한길바람개비문고'의 「큰길을 가겠다」(한길사)는 교육운동 차원에서 부임지마다 활발히 글쓰기교육을 펼치고 있는 이호철 선생님이 울진 온정국민학교 재직시 만들었던 학급문고다. 학급문고로는 첫출판물이었던 이 책에는 반어린이들의 글이 한사람 것도 빠짐없이 다 수록돼 있는데 1부 '시'는 출석부에 적힌 이름의 차례대로 배열했고, 2부 '줄글'은 출석부의 끝번부터 수록, 어린이 각각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를 엿보게 한다. 역시 '한길바람개비문고'에 들어 있는 「현복이의 일기」는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의 1년치 일기모음. 날마다 한가지씩 제목을 정해 하고 싶은 말, 겪었던 일을 차분히 적어내려간 품

이 어린이답지않은 논리정연함과 생각의 깊이를 보여줘 발간 당시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도서출판 산하가 창작동화 중심으로 기획해내고 있는 '산하어린이' 시리즈에 들어있는 세권의 어린이문집은 조금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경북 울진 온정국민학교 4학년2반 어린이들의 산문모음 「공부는 왜 해야 하노」와 시 모음 「비오는 날 일하는 소」, 안양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오민진 어린이의 일기모음 「너에게만 보여줄게」에는 권말에 산문이나 시, 일기 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위기철, 이호철 선생님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시리즈에는 어린이 자신들이 직접 그린 삽화를 실고 있어 어린이들의 세계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좀더 다양한 글모음 나왔으면...

한편, 글짓기대회 입상작 모음이나 생활수기 모음 등은 어린이들의 빼어난 글솜씨나 나이답지않은 어른스러움으로 또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글짓기대회 수상작품집으로는 동원산업과 서울YMCA가 공동으로 개최한 '바다글짓기대회' 작품집 「꿈꾸는 바다」(1회, 대원사) 「바다야 바다야」(2회, 대원사)와 (주)논노가 마련했던 '친구이야기 글짓기대회' 작품집 「우리는 친구」(대교출판) 등이 있다. '바다글짓기대회' 2회 수상작품집 「바다야 바다야」에는 전국의 460여 학교 초중생 6만9천여명이 참가, 그 가운데 입상작 173편이 수록돼 있는데,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 바다를 이웃한 어린이들의 따듯한 생활이 감동을 선사한다.

한국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동아제약이 협

찬한 '제1회 소년소녀가장 생활수기 공모' 수상작을 모은 「엄마 대신 아빠 대신」(대교출판)은 부모를 잃은 슬픔을 딛고 어린동생과 늙은 할머니를 부양하며 깨끗이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의 가슴증한 이야기 42편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대교출판에서 최근 내놓은 「좁쌀반장」은 연변 조선족어린이들의 글모음이란 점에서 이채를 띤다. 동무, 3호학생, 호도거리, 단원, 알락오양이 등과 같은 재미있는 어휘들이 등장 동포어린이들의 생활을 엿보게 한다. 특히 서울외국인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신영이 어린이는 미국의 동화작가 비버리 클리어리의 「헨리와 말라겐이」(현암사)를 직접 번역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미국에서 재미있게 읽은 이 책이 국내에 소개돼 있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어 직접 번역하게 됐다고.

어린이 자신들이 필자나 역자가 되어 펴낸 이 책들에는 그저 어리다거나 천진하다고만 여겨 유심히 귀기울이지 않았던 어린이들의 갖가지 사연과 생각들이 놀랍도록 많이 담겨 있다. 여러권의 어린이글모음을 묶어낸 바 있는 서울탑동국민학교 이주영선생님은 "모인 글을 선별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여러번 있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 우리들조차 아이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글들을 읽으며 깨달았다"고 경험을 말한다. 경인지역 어린이들의 생활글모음 「억지로 하기」를 묶었던 최원식(인하대 국문과) 교수도 "이 글모음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른들이 읽고 어린이들의 진실한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이런 책을 통해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창조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 글모음들은 대부분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정도만 지도교사가 바로잡아 주었을 뿐 다소 엉성한 표현이나 사투리 등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윌레씨는 "시나 산문, 일기글 모음이 주를 이뤘던 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글쓰기나 독후감 모음 등 좀더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나와야 한다"며 어릴때부터의 글쓰기지도도를 강조했다.

— 정혜옥 기자